

# 깨달음 논쟁 “‘이해’ 인식작용도 깨달음의 방해꾼”

### 서재영 박사, 성철 스님 논지로 현응 스님 깨달음론 비판

새해 들어서도 깨달음 논쟁이 식지 않고 있다. 서재영 박사(사진)가 해인사 백련암이 발행하는 선 전문지 <고경> 1월호의 글을 통해 현응 스님의 깨달음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열린 <깨달음과 역사> 발간 2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현응 스님의 “깨달음은 이해의 영역”이란 주장이후 깨달음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서재영 박사는 “깨달음에 대한 두가지 해석” 글에서 “현응 스님은 ‘깨달음은 이해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설법, 토론,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깨달음은 말을 떠난 언어도단의 세계이며, 마음의 작용이 사라진 심행처멸의 경지다”고 논지를 펼쳤다.

서 박사는 이어 “현응 스님이 ‘잘 이해함’에 대해 스승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대화와 토론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성철 스님의 주장으로 보면 언어적 범주에 불과해 표피적 인식작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 박사는 성철 스님의 입장에서 현응

스님의 주장을 비판했다. 서 박사는 “선가의 전통적 입장이나 현대를 대표하는 수행자였던 성철 스님의 입장은 깨달음의 장애물로 인식작용 뿐만 아니라 마음을 구성하는 8식 전체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깨달음이란 잘 이해함과 같은 6식의 작용을 넘어서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따라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6식 차원의 ‘인식’이 아니라 제8 아뢰야식 차원으로 내려가 무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깨달음은 8식, 이해는 6식”

서 박사는 성철 스님이 8아뢰야식 단계를 근본무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 ‘구경각’ 설과 현응 스님의 ‘잘 이해함’을 컴퓨터의 메모리인 롬(ROM)과 램(RAM)으로 설명했다.

롬은 컴퓨터를 켜 때마다 변함없이 작동하는 BIOS라는 가장 기본정보를 담고 있는 메모리이며 램은 컴퓨터가 작동할 때마다 변하는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



<고경> 1월호 기고글에서 “이해, 언어범주 불과” 주장 선행교설 우선검토 제시도

는 메모리다.

서 박사는 “유식학에 근거해 적용한다면 롬은 자기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제8아뢰야식에, 램은 금생에서만 작동하는 제6식에 각각 비유할 수 있다”며 “6식이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기관의 정보에 근거해 작동하지만 삶이 끝나는 순간 램에 저장된 정보처럼 모두 사라진다”고 말했다.

“선행 교설 있어, 교설 검토부터”

서 박사는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

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유식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경각을 성취해야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깨달음이란 일상 속에서 법문을 잘 듣거나 문자를 해독하여 머리로 잘 이해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해의 기억들이 삶이 지속되는 순간에는 작동하지만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 박사는 “생사윤회는 불교의 기본적인 전제에 해당한다. 해탈은 그와 같은 근원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성철 스님이 말한 구경각은 제6식 차원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변화, 이성적 차원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스님이 말하는 깨달음은 유식의 심의사설을 수용해 근원적 무명의 단절, 생사의 종언, 윤회전생의 종결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박사는 “깨달음에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은 있지만 그 논의는 이미 오랜 역사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교설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제가 유의미한 논쟁이 되려면 선행하는 교설에 대한 검토와 비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힘있게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특별기고



중국 난징의 위안소 진열관 내 한국 위안부 사진이 보인다. 시대의 아픔을 중국인들이 기억하고 있다.

## 日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2015년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간 합의를 목표로 회담한다는 정보가 흘러 나왔다. 구랍 26일 나는 불교 수행자의 입장에서 이 가능성에 대해 말할 적이 있다. 결론은 한일 간 합의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일 불교 교류를 통해 한국의 사정을 배운 만큼, 어중간한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랍 28일 한일 위무장관 회담은 ‘돌이킬 수 없는(不可逆의)’ 합의를 표명한 아베 총리가 ‘사과’와 ‘일본군 관여’를 밝혔다. 말그대로 ‘날벼락’이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분노와 슬픔

회담 결과를 놓고 한국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다. 특히 할머니들의 목소리이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일체 상의하지 않고 외교 정치 수준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한일 합의 후 그 배경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일본 측은 “사과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 했으니, 일본 대사와 앞 ‘평화 소녀상’을 이전 또는 철거 해 주었으면 한다. 이것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설립한 재단에 약속 10억 엔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걸 아베 총리가 하고도 남을 짓이다. 즉, 할머니들의 상징인 ‘평화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크게 전진했다고 기뻐했던 일본 시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中 난징의 위안소 박물관

아베 총리의 역사를 무시한 강경 태도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중국 난징에서는 ‘남경 대학살 추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은 지난해부터 중국의 ‘국가 애도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추도식과 관련 2개의 큰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대학살 기념관 신관’ 완공이고, 다른 하나는 남경시의 위안소 흔적을 리모델링한 ‘남경 이제항 위안소 구지 진열관’ 준공이다.

전자는 파시즘과의 싸움을 주제로 한 것이고 후자의 A관은 역사적 해설, B관은 위안소 복원관이다. 이 외에 무려 4동의 전시관이 있는데, 그 중 1개는 한국관이며 총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세계 최대의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이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만 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크게 취급하고 있다.

불교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한일 위무장관 합의 이후 어떤 국면을 맞을 것인가? 이제 결코 낙관 할 수 없다. 시민이 반성하고 개개인이 엄격히 감시하고 한 목소리를 유지해야 한다. 물론 우리 불자들 역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불교 신자는 불교적 생각을 하고, 불교적으로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 간의 흥정은 국가에 맡기면 된다.

‘사무람심’에 그 열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 자(慈)의 마음 = 할머니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 비(悲)의 마음 = 할머니들의 슬픔을 나누어 가짐 △ 희(喜)의 마음 = 할머니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 △ 사(捨)의 마음 = 이러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수행하는 것이다.



이치노헤 쇼코(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 일반포교사 자격고시

### 2월 20일 전국 시행

제21회 일반포교사 자격고시가 오는 2월 20일 전국 8개 고사장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목)이 실시하는 이번 자격고시는 △동대부여고(서울·경기·인천) △금정중학교(부산·울산·경남) △광주불교대학(광주·전남) △명륜고교(강원) △보문고교(대전·충청) △능인고교(대구·경북) △화엄불교대학(전북) △서귀포불교대학(제주) 등 8개 고장에서 오후 2시 동시에 시작된다.

응시 자격조건은 조계종 재적사찰에서 신도오계를 수지하고, 신도등록을 필한 자로서 포교원 인가 전문교육기관(불교대학)에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동국대 불교대학·불교대학원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다. 2016년 전문교육기관 졸업예정자는 포교원에 1월 29일까지 졸업보고를 해야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월 15일까지이며 각 신도전문교육기관 교학처와 조계종 포교원에 접수하면 된다. 전형료는 1인 5만 원. (02)2011-1894 윤호섭 기자

## 출가는 행복입니다

### 조계종 교육원, 출가 진흥 포스터 6종 발표

출가자 감소 현상이 눈에 띄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출가 진흥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출가는 ‘어렵고 고되다’는 세간의 편견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의 여정’이라는 이미지를 전하기 위한 사업이 주요 골자로 이뤄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가진흥을 위한 사업의 첫 포문으로 출가 홍보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는 일반 전단용 포스터 총 6종(2종씩 3세트)과 온라인 배포용 3종이다.

현재 출가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49기 행자교육원에서는 처음으로 100명 이하인 96명이 수계교육을 수료했다. 이런 추세라면 1년에 200명 출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교육원이 올해를 ‘출가 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단 사상 최초로 현대적 감각의 출가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것도 출가를 대중들이 쉽게 다가



오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첫 홍보 포스터의 1호 모델로는 비구 세진 스님(성남 연화사 주지)과 비구니 우담 스님(봉양 금강울학승가대학원 연구과장)이 선정됐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스님들의 모습에서 출가자의 삶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이루는 것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담고 있다.

6종의 포스터는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사찰 및 전국 대학으로 한 세트씩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출가 진흥을 위해 ‘출가 홈페이지’ 리뉴얼과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출가콘서트’(가칭)를 진행한다. 또한 불교 중립고등학교 대상으로 출가의 의미와 방법,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할 수 있는 ‘종립학교 강연회’(가칭)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원은 “2016년 출가진흥 사업을 교육원의 주요 중책 사업으로 삼고 양질의 출가 수행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인터뷰 4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강남 생활권 제2종 주거지역 과천토지 매각!

-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제2의 강남인 과천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

과천시 2020핵심전략 1순위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그린벨트 규제완화 최대 수혜지 예상지-과천”

4호선 선바위역 800m

국토부, GB 해제 집단취락지역 실태조사 실시! 재산권 행사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개발 탄력 받을듯...

- 국토부, 주민 실태조사 등으로 개선안 마련계획 (2015-05-21 한국경제)
- 30만㎡이하 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 국토부에서 지자체장에게 이관
-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진행중 (7곳 해제, 12곳 용역 검토중)

### 부동산 매각개요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구분	공급면적	매각가
A블럭	330㎡	1억 2천만원
B블럭	330㎡	1억 1천만원
C블럭	330㎡	1억원

■ 청약금: 100만원 ▶농협 355-0038-4227-43 (주)경기토지개발

※인접 토지의 경우, 1,500~3,000만원의 시세가 형성중 (공시지가: 700~800만원)

**3.3㎡당 100~120만원**  
(분양단위 : 330㎡)

시행사 (주)경기토지개발 ■소유권 등기: 법무사

청약신청 (현장관리자) **02)2058-0132**